눈물 쏟은 '손' 뒤로 박수가 쏟아졌다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토트넘, 리버풀에 0-2 패배
손흥민 고군분투 아쉬운 준우승

"돌아보지 말자. 빅이어 차지 할 때까지" 손흥민(토트넘)이 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시상식에서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고개를 숙인채 눈앞에서 놓친 빅이어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토트넘(잉글랜드)이 리버풀(잉글랜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처음 나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패배를 맛봤다.

토트넘은 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리버풀과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0-2로 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창단 이후 처음 도전한 UCL결승에서 무너지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4-2-3-1 전술로 나선 토트넘의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를 따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이번 시즌 20골(정규리그 12골, FA컵 1골, 리그컵 3골, UEFA 챔피언스리그 4골)로 시즌을 마감하며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21골) 기록 경신에 실패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2010-2011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결승전에 선발 출전한 박지성 이후 8년 만에 대회 결승전에 뛴 두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반면 지난해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의 아쉬움을 가슴에 품었던 리버풀은 한 시즌 만에 다시 결승에 올라 마침내 우승 트로피인 '빅이어'를 차지하며 2004-2005시즌 우승 이후 14년 만이자 통산 6번째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을 꽁꽁 묶은 리버풀의 수비수 피르힐 판데이크는 결승전 '맨 오브 더 매치(MOM)'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 4강에서 리버풀에 패해 탈락한 바르셀로나(스페인)의 리오넬 메시는 총 12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다.

치열한 승부가 달아오르기도 전에 리버풀이 행운의 득점 찬스를 맞았다.

킥오프 18초 만에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마네가 올린 크로스가 토트넘 미드필더 무사 시소코의 오른팔에 맞았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살라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강력한 왼발슛으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동안 2개의 슛밖에 시도하지 못한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을 오른쪽 날개로 위치를 바꾸며 반전을 노렸다.

손흥민은 후반 30분 알리의 패스를 받아 리버풀 수비수 3명 사이로 '드리블 쇼'를 펼쳤지만 피르힐 판데이크의 발에 막혔다. 후반 35분에도 강력한 왼발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득점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 챔스 이모저모 /

그라운드에 드러누운 손흥민
살라가 어깨 두드리며 위로
관중석 아버지 찾아가 포옹

손흥민(토트넘)이 유럽축구 꿈의 무대 우승 좌절 후 눈시울을 붉혔다.

손흥민은 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리버풀과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선발 출전했다.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은 리버풀의 모아메드 살라와 디보크 오리기에게 골을 내줘 0-2로 졌다.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수 중 최고 평점을 받았으나 우승을 놓친 아쉬움은 지울 수 없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그대로 그라운드에 누웠다.

벤치에 앉아있던 팀 동료 데이비스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 했으나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앉은 상태로 고개를 파묻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리버풀의 살라도 좌절한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패배해 우승을 놓쳤던 살라는 그의 몸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손흥민은 눈물을 흘린 듯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

경기 후 메달 수여식에서도 손흥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토트넘 선수단 중 맨 마지막으로 메달을 받았다.

경기장에는 리버풀의 대표 응원가인 '유 윌 네버 워크 얼론(YOU'LL NEVER WALK ALONE)'이 울려 퍼졌고,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이 모인 관중석으로 향했다.

팬들은 손흥민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관중석으로 다가가 자신을 응원하던 아버지 손웅정 씨를 끌어안았다. 돌아서는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결승전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영국 일간지 더 선과 인터뷰에서 '결승에서 패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나'라는 질문에 손흥민은 "눈물이 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울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눈물은 그냥 터져 나온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 때도 울었고, 4년 뒤 러시아월드컵에서도 울었다"며 "이제는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절대 이번에는 패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토트넘은 리버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던 손흥민의 다짐도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돼죠"

U-20 축구 아르헨 꺾고 16강
5일 새벽 8강 티켓 놓고 결전
"하던 대로 하면 충분히 이길것"

지난 31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티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전반전 한국 오세훈이 헤더골을 넣고 크로스를 올려준 이강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16강에 오른 한 팀일 뿐이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16년만에 한일전이 성사됐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 정서가 크지만 태극전사들은 부담감을 버리고 "하던 대로 잘하는 것만 보여주겠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1일 열린 '강호' 아르헨티나와 대회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2-1로 승리, 2승 1패(승점 6)로 조 2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올랐다.

2017년 한국 대회 이후 두 대회 연속 조별리그 통과에 성공한 한국의 16강전 상대는 '숙적' 일본이다.

한국은 5일 새벽 0시 30분 폴란드 루블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만나 8강 진출을 다툰다.

한국은 일본과 남자 축구 연령별 대표간 역대 전적에서 모두 앞선다.

A대표팀은 41승 23무 14패로, U-23 대표팀은 7승 4무 5패로 우세하다.

특히 U-20 대표팀간 전적에서는 무려 28승 9무 6패로 일방적으로 앞선다. U-17 대표(11승 9무 5패)와 U-14대표(26승 10무 7패)도 일본에 우위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U-20 월드컵에서만큼은 일본에 아픈 기억이 남아 있다.

한국은 2003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 16강에서 일본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 1-2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한국은 전반 38분 최성국의 선제골로 앞서 갔지만 후반 37분 동점골을 내주며 연장 승부에 들어갔다. 한국은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헌납했다.

일본은 조별리그 B조에서 1승2무(승점 5)의 무패행진을 펼치며 이탈리아(승점 7)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3경기를 치르면서 일본은 4골을 넣고 실점은 1로 묶었다. 조별리그에서 3득점-2실점을 기록한 한국보다 수비 측면에서 낫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일본은 4골 가운데 2골을 미야시로 다이세(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책임졌다. 최전방 공격수인 미야시로는 멕시코전에서 멀티골로 일본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 수비수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정정용 감독은 "일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16강에 오른 한 팀일 뿐이다"라며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강인(발렌시아)도 "일본이 라이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던 대로 잘하는 것을 준비하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경기는 질수도 이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들었다.

한국이 16강에서 일본을 물리치면 세네갈-나이지리아 승자와 8강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김보아 통쾌한 역전 우승
KLPGA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불과 50일 전 90㎝ 파퍼트를 놓쳐 연장전 합류 기회를 날리고 땅을 쳤던 김보아(23·사진)가 통쾌한 역전 우승으로 한을 풀었다.

김보아는 2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 스카이·오션 코스(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정상에 올랐다.

김지영(23)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린 김보아는 작년 보그너 MBN 여자오픈 제패 이후 1년 만에 통산 2승 고지에 올랐다.

우승 상금 1억2000만원을 받은 김보아는 시즌 상금랭킹 6위(2억3315만원)로 올라섰다.

내년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롯데챔피언십 출전권을 받아 미국 무대 진출 기회도 잡았다. /연합뉴스